



가축분뇨자원화에 '양돈농가·경종농가' 한뜻

이천시지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앞장섰다.

대한양돈협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정종극)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11시 경기 이천시민회관에서 2006년 제1회 수도작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및 이천시내 양돈·한우농가와 경종농가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 자연순환농업, 축산·경종농가 상생의 길

이날 조병돈 이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확대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가축분뇨 액비 생산을 통해 농가는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품질좋은 이천쌀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을 높이는 등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모두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 역시 축사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의 성패는 양돈농가의 노력과 경종농가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천시지의 사례를 시작으로 자연순환농업의 우수사례들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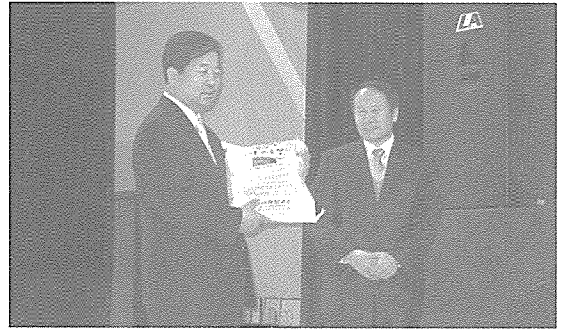
◎ 양돈농가, 우수 액비생산에 최선 다짐

한편 정종극 이천시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종농가와 협조를 잘 이뤄 우수한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할 것을 다짐했으며,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

'2006년 제1회 수도작 경진대회' 개최



▲ 수도작 경진대회 수상자들. 최고상에 김창기씨를 비롯해 대상 최득승·김복수씨, 우수상 정해용·신재호·강수열씨, 장려상 강길원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수도작 경진대회는 경종농가에게 액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액비를 이용해 재배한 농작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중국 지부장은 양돈농가를 대표해 경종농가와 협조를 잘 이뤄 우수한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할 것을 다짐했다.

장도 축사를 통해 양돈인들이 힘을 모아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천시부가 추진한 수도작 경진대회는 경종농가에게 액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가축분뇨 액

비를 살포해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및 재배한 쌀을 이용해 만든 밥의 맛, 밥의 색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우수 농가를 선발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수도작 최고상에 김창기씨 수상

총 1천만여원의 상금은 이천시부 회원농가들이

모금했으며, 이천시부 유병택 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이천시청 축산과와 농림과, 이천 농업기술센터 작물계 공무원이 심사를 한 결과 최고상에 김창기씨를 비롯해 대상 최득승·김복수씨, 우수상 정해용·신재호·강수열씨, 장려상 강길원씨를 선정하고 상패와 함께 최고상 300만원, 대상 2명 각200만원, 우수상 3명 각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 수도작 경진대회 최고상 수상농가 김창기 씨

최고상을 수상한 김창기씨는 가축분뇨로 벼를 재배해 벼 품질이 무척 좋아졌다고 하며, 올해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 1만4천평의 벼농사를 지었는데, 내년에는 4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돈분뇨의 자

연순환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돈**

캠 페 인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양돈농가 생존전략 '가축분뇨 자원화'